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가까이 지내라.
그리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7월 29일)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상월결사는 9월 5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 입재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입재식에서 참가 대중이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제창하는 모습.

400여 대중, '대학생 전법' 방안 찾기 나섰다

상월결사, 9월 5~6일 대학생전법위 워크숍 개최

교구 전법위원 등 400명 결집
진우 스님 "전법 등불 밝히길"
천태종 등 종단협 종단 동참해
권역별 그룹이 전법 방안 논의
MZ세대 이해 소통 위한 강의도
자승스님 "나부터 탁발로 전법"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신중일 기자

미래불교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부처님 법을 전할 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00여 사부대중은 한 곳에 모여 다양한 주제로 대학생 전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9월 5~6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 앞서 입재식이 봉행됐다. 입재식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각 부문별 전법위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부회장 종단의 스님과 정사들이 전법위원으로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워크숍은 상월결사가 지난 7월 6일 대학생 전법 전문 조직인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구성하며 비롯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지난해 12월 18일 (사)상월결사 창립총회에서 대학생 전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전문 조직 구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올해 1월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관련 현황과 전법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상월결사는 조계종 포교원과 학교법인 동국대와 대학생 전법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했으며, 상월결사 인도순례 해단식에서 대학생 전법위원회 자문위원 5명, 전법위원 22명을 위촉해 전법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올해 5월 이후부터는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을 위한 TFT 회의와 교구장 간담회, 종정예하 · 총무원장 스님 보고 등을 거쳐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로 대학생 전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의 대학생들은 부처님 여섯 번째 제자인 '야사의 후예'들이며, 전법의 주역으로 성장할 새싹들"이라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은 '야사의 후예'를 양성하는 방안과 전법의 주역을 육성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 나누는 자리다. 오늘의 진력과 헌신이 대학생 불자들에게 활력이 되어 미래불교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생 전법 워크숍이 청년대학생 포교의 원력을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은 의무나 책임을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하셨다"면서 "대학생 전법은 미래불교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시작해 원력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워크숍에서는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의 '대학생 전법의 의미와 방향' 기조 발표와 △MBTI를 활용한 대학생의 이해와 공감(최민주 강사) △MZ세대의 이해와 접근(허태균 고려대 교수) 특강이 진행됐으며, 대학생 전법 우수 사례 발표(홍대선원 · 신구대 불교동아리 ·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이뤄졌다.

또한 전법위원들은 지역별로 6개 그룹으로 나눠 '대학생은 무엇을 원하는가'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2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법위원들은 △생활과 접목 가능한 불교 콘텐츠 △체계적인 동아리 운영지원 방안 △대학생과 함께하는 대중공사 정례화 △핵심 인재 발굴 · 육성 전략 △홍보 · 마케팅 전략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9월 6일에는 권역별 · 교구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서 전법위원들은 대학생 전법을 이끌 핵심 인력인 '키맨(Key-Man)'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향에 앞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해 자신이 직접 탁발하며 지원하겠다는 서원을 내보였다.

자승 스님은 앞으로 교구본사가 대학생 전법기금 1억 원을 조성해 지역 3곳 대학의 전법을 책임져 줄 것을 제안하며 "5~6년동안 제가 직접 탁발하면서 전법 기금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원력을 공표해 눈길을 끌었다.

자승 스님은 총평 이후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 개최에 많은 노력을 한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과 김용현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에게 '부처님 법 전합시다' 친필 휘호를 전달했다. 이후 상월결사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제창을 끝으로 워크숍을 회향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10월 28일 의성 고운사에서 '평화 방생 순례'를 개최한다.

〈관련 특집 2 · 3면〉

젊은 비구니스님 위한 '나란다수행관' 제3관 불자 보시로 개관해

조원희 불자, 소유 부동산 무상임대
수행관 더불어 지역 포교 허브 역할

학업과 계층 포교를 위해 서울에 머무는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처 '나란다수행관'이 최근 3관을 마련하며 젊은 스님들의 원력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 스님은 9월 7일 "서울 금호동에 나란다수행관 제3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자우 스님의 원력으로 지난 2018년 2월 처음 문을 연 나란다수행관은 그동안 젊은 비구니스님들에겐 소중한 보금자리로 평가돼왔다. 대학원 공부, 사찰음식 수업, 장애인 포교 등을 위해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비구니스님들이 변변한 거처가 없어 여관이나 고시원 등에서 지낸다는 고충을 듣고 시작한 불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개관한 3관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조원희 불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며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조원희 불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두 달간 직접 수행관 인테리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우 스님은 "방사가 부족해 스님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조원희 불자의 발심 덕분에 나란다수행관은 총 9개 방사를 갖추게 됐다"며 "더 많은 비구니스님들이 홍제동과 금호동에 지내면서 포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8년 개관한 나란다수행관은 여러 스님들의 보금자리가 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행히 불자들의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해 5년여 동안 총 30명의 스님들이 나란다수행관을 다녀갔다. 농인법회 '자비두손회'를 이끌고 있는 일원 스님,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는 범준 스님, 사찰음식을 전문화하고 발전시키는 성화 스님, 영어경전 번역과 동시통역 활동을 하는 민우 스님도 나란다수행관을 이용했다. 나란다수행관이 단순한 숙박이 아닌 도심 포교의 허브 역할을 하는 셈이다.

동국대 박사과정을 마친 선우 스님은 "나란다수행관이 없었다면 공부를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자우 스님은 "도심포교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요즘, 포교 현장인 도심에 스님들이 머물러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나란다수행관이 더 여법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란다수행관 입방과 보시에 대한 문의는 비로자나국제선원으로 하면 된다. (02)6012-1731

윤호섭 기자

특별인터뷰
호산 스님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후보) 7면

2024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할 역량있는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2567(2023)년 7월 20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 명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규정)」
제4조 (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 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5.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구비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갖춘 사찰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지정요건) ① 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예산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선정 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23년 9월	2023년 10월	2023년 10월	2023년 11월	2024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지원 없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0일(목) ~ 9월 22일(금)
- 신청자격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소속 사찰
- 신청서류
  1) 2024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자료 포함)
  2)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 신청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1)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2) 파일제출 : jiuk@templestay.com으로 제출
- 접수 및 문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지운규(02-2031-2030)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통지

※신청기한 경과 및 구비서류 누락 시 탈락